

교통약자 보행 안전을 위한 사업 시행

광주시 교통정책과
2018.11.15.

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
2018.11.22.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2018.10.31.



노란전신주가 설치된 초등학교 모습

자료: 부산시(2018), "부산시, 어린이 보행안전 취약지점
'노란전신주' 설치", 11월 22일자 보도자료.

광주시,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광주시는 말바우시장 주변 200m, 양동시장 주변 220m 구간 도로 중앙에 울타리 형태의 무단횡단 금지 시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말바우시장은 고령자의 통행량이 많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여, 관련 기관의 현장 합동점검 시 교통안전시설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 지역이다. 양동시장은 시장을 이용하는 고령자와 양동초등학교 학생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육교가 있지만 무단횡단이 잦아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했다고 시는 설명하였다.

부산시, '노란전신주 설치 시범사업' 완료

부산시는 어린이 보행안전 취약지점에 위치한 6개 초등학교 일원에 '노란전신주' 85개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완료하였다. 노란전신주는 '어린이보호 구역 및 제한속도 30'이 표시된 노란 표지판으로 전신주를 포장하여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시설이다. 시는 도로교통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시설물 설치 전과 후 속도감소 효과를 분석하고 학부모와 주민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시내 초등학교 주변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남도, '보행자 교통안전 지킴이 시스템' 시범 운영

전남도가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교통안전 지킴이 시스템'을 도입한다. 농어촌 지역은 야간에 차량 통행량이 적어 과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많고, 가로등과 같은 조명 시설도 부족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 비중이 33%를 차지하고, 보행자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가 88명에 달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은 열감지 센서, LED 전광판, 경광등을 응용해 농어촌 지역 도로에 보행자가 통행할 경우 운전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도록 전광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시범 운영 지역은 무안 2개소와 강진 1개소로, 2019년에는 22개 시군 가운데 농어촌 지역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